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례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마음을 지켜 주시는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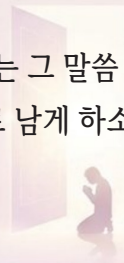
걱정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나는 그 문을 기도로 열겠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두려움까지
 감사와 함께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화가
 흔들리는 내 마음을 지켜 주시고,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당신 안에 머물게 하소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씀 하나가
 내 영혼 깊은 곳에 평화로 남게 하소서.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6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우리 본당 목표 금액 - \$ 57,774

10/01/2026 기준

목표 금액 - \$ 57,774

현재 기부 금액 - \$30,985

현재 참가 인원 - 75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4 예물 준비 성가 : 340, 215 성체 성가 : 170, 172 파견 성가 : 271

한가위/연중 제26주일(9/27)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34명	-	449명	-	46명	526명



위대한 성녀 제르트루다(2)

*예수 성심의 신학자, 위대한 신비가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깊은 영성으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추구하며,
기도가 곧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 준 성녀.*

예수 성심의 신학자

제르트루다 성녀의 영성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예수 성심에 대한 강렬한 사랑과 헌신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예수 성심의 신학자'로 불리며, 예수 성심 공경의 초기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여겨진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신비, 특히 그분의 상처를 깊이 묵상했다. 그러나 그녀가 바라본 상처는 단순히 피 흘리는 고통과 슬픔의 표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으로 정화되고 영광스럽게 변모한 그리스도의 성심을 드러내는 표지였다.

그녀의 대표적인 덕행 가운데 하나는 순명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순명은 단순히 규율을 지키거나 장상에게 복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순명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며, 일상 안에서 순교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녀에게 완전한 순명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했다. 또한 자신이 하느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의 촛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완전한 겸손이기도 했다.

이러한 겸손은 자연스럽게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으로 이어졌다.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완전한 순명의 모범을 보여 주신 성모 마리아와의 일치를 통해, 그녀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 순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일치하고자 했다. 결국 그녀가 추구한 순명은 자신의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느님께 자신을 완전히 봉헌하는 삶이었다.

"아! 신랑이 오신다"

1288년 제르트루다 성녀는 중병을 앓기 시작했고, 이후 합병증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지냈다. 전승에 따르면, 그녀



는 1302년 11월 16일 세상을 떠나면서 "아! 신랑이 오신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이는 신적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갈망했던 그녀의 삶과 영성을 잘 드러내는 말이다. 그녀는 교회 안에서 오늘날과 같은 공식적인 시성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1606년 교황청은 전례 안에서 그녀를 공적으로 공경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후 그녀의 깊은 영성과 신비적 체험은 교회 안에서 널리 알려졌으며, '위대한 제르트루다'라는 칭호로 다른 동명의 성녀들과 구별되어 왔다.

제르트루다 성녀의 생애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개인적인 기도이든 전례적 기도이든, 일상적인 순간이든 신비적인 체험이든, 기도는 언제나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성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공지 사항

1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초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 초를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역 음식 봉사/ 구역의 날

- 일시 : 10/11(주일)
- 음식 봉사 : Bothell 구역
- 메뉴 : 닭개장

3 한국학교 교사/ 보조 교사 모집

성김대건 한국학교에서는 2026-2027학년도 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4 성서 모임

- 신청대상 : 18세 이상 영어권
- 날짜 : 10/ 7(수) - 11/4(수)까지
8:30-10:00pm 5번 줌 강의
- 신청비 : \$30
- 문의 : Sr. Mari Josephine
cblm.english@gmail.com



5 주일학교 & Youth Group 학생 등록

26-27년도 Faith Formation(주일학교)와 Youth Group 학생 등록을 받습니다. 시애틀 대교구의 명칭 사용에 맞추어 영어 명칭은 Sunday School 대신 Faith Formation이 사용됩니다.

- 주일학교 & YG 시작 : 10/11(주일)
- 등록비 : 1명 \$120 / 2명 \$220 / 3명 \$300
4명 이상 학생 1인당 \$100
- ★ 3학년 : 첫영성체 준비
- ★ 7-8학년 : 2년 과정의 견진성사 준비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 ★ 9-12학년 : Youth group(임시 운영)으로 추후 프로그램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일학교 문의 : 장우혁 유스티노
(whyek.jang@gmail.com)
- 박지윤 레이나 (reina.park1011@gmail.com)
- YG 문의 : 김형석 그레고리오
(h.greg.kim@gmail.com)

등록은 QR 코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당송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니다.

제1독서 이사 51,7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의 집안이다.>

화답송

◎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제2독서 필리 4,6-9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알렐루야.

복음 마태 21,33-43

<주인은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영성체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우 리 들 의 정 성

[교무금] 이명희 김경자 광노환 이춘자 송재민 이천우 정승권 지유선 유미자 신 정 박균조 박수익 오영실 김요셉 천기전 조항영 박명완 이현주 박애령 한춘미 김 준 이성준 박민수 윤명진 호명규 전명순 전창두

[교무금 Push Pay] 황현선 이상철 윤성욱 이경이 장경화 오영주 채솔이 배정규 정재열 강철권 윤법영 위미림 이종일 주성택 박소영

[달력 광고]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감사헌금] 정순도 이명희 익명 [꽃 봉헌] 만들레 [성소 후원회비] 이명희

주일 헌금	교무금	교무금 PUSH PAY	Catholic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달력 광고	감사 헌금	꽃 봉헌
\$7,458.00	\$8,000.00	\$2,553.66	\$1,460.00	\$500.00	\$65.00	\$100.00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텟 융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옥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겟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리나 웰니스 클리닉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통탄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료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맨	Bridge Tax Services
홈페이지 제작/광고/행사/유튜브 촬영 & 편집/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타)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 식당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폴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화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10/29/26)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10/17/26)

교황청 시노드 사무처 - 평신도가정생명부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반포 10주년: 오늘날 가정들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기

레오 14세 교황 성하와 동방 교회 수장들과 주교회의의 의장들의 모임 (2026년 10월 7-14일)

주제 안내

교황 성하와 동방 가톨릭 자치(sui iuris) 교회 수장들과 주교회의의 의장들이 만나는 이번 모임은 “「사랑의 기쁨」의 가르침에 비추어 그리고 각 지역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들을 고려하여, 서로 경청하는 가운데, 오늘날 가정들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길들을 시노드 정신에 따라 식별해 나가려는”¹⁾ 뜻에서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미 진행 중인 ‘사목적 회심’의 과정에 포함되는 하나의 사목적 여정임이 분명합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주님께 「사랑의 기쁨」을 통하여 시작된 “이 여정을 이어 나갈 용기”를 청하며 “모든 이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쁨 안에서 언제나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이[도록]” 초대받습니다. 이러한 전망 안에서, 가정들은 그저 교회의 사목적 돌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복음은 가정들을 통하여 일상의 관계들과 선택들, 연약함과 희망 안에 구체화됩니다.

이 성찰의 시간에 만남, 경청, 식별을 위한 진정한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곧, 가정들이 살아온 경험을 기꺼이 듣고,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교회 공동체들이 하느님 은총에 힘입어 실천하고 있는 동반의 노력들을 되돌아보고, 전문가들과 대화하는 장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는지 식별하여, 성령께서 이미 가정들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인식하고 지원하며 증진하고, 교회의 사명에 대한 가정들의 기여를 소중히 여기는 데에 있습니다.

1. 오늘날의 가정: 현실, 아름다움, 도전 가정들의 경험과 오늘날 교회의 사목적 헌신을 통하여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기

이번 모임의 출발점은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러한 시선은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립니다. “우리 시대는 급격한 변화로 특징지어지기에, 십 년 전보다 가정에 더 특별한 사목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 선포와 증언이라는 교회의 사명에 동참할 임무를 가정에 맡기십니다.” 「사랑의 기쁨」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 “어느 모로 하느님의 고유한 사랑을 반영하는 사랑의 표징”을 소중히 여기며 “인내심을 갖고 분별 있게”(294항) 한 사람 한 사람을 동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들의 구체적인 삶과 그들을 동반하는 이들의 경험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사랑을 위태롭게 만들곤 하는 취약성도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약성에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질병, 자녀 양육의 어려움, 정서적 고독, 장애 있는 가족 구성원이거나 노인 또는 자립이 어려운 이들에 대한 돌봄 등이 있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생활에서, 어떤 희망의 표징, 어떤 도전들과 중대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변화가 남녀 간 사랑의 경험, 생명의 탄생, 돌봄, 신앙 전수,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떤 사목적 경험들이 가정의 구체적인 삶 안에서 하느님의 활동을 인식하고 가정의 인간적 영성적 자원을 증진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합니까? 가정들의 이야기에 대한 경청과 지역 교회들의 경험에

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삶의 경험, 교회적 식별, 신학적 연구, 인문학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는, 우리가 가정들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가정들을 더 효과적으로 동반하는 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2. 젊은이들과 혼인 성소의 발견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혼인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동반하기

젊은이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 때문에, 안정된 혼인과 가정생활을 계획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약화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부의 모범을 보여 주는 증인들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리스도인의 혼인의 아름다움과 약속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다시 한번 깊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젊은이들은 교회 안에서 혼인 성소의 아름다움에 매료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이들이 혼인의 가치를 깨닫도록 돕는 언어, 경험, 그리고 교육적이고 영적인 여정은 무엇입니까? 부부와 가정은 어떤 증언을 할 수 있습니까? 부부와 가정은 젊은이들이 정서적, 관계적, 성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그들을 동반하는 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습니까? 동거하는 커플들이 혼인을 선택하고 자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 안에서 성숙해가도록, 사랑과 가정에 대한 그들의 식별 여정에 교회가 동반할 때, 어떤 사목적 관심과 사목적 회심의 단계들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3. 혼인 생활. 결정적인 때인 혼인 초기

혼인 생활 초기를 비롯하여 삶의 모든 단계에 있는 부부에 대한 경청과 동반

혼인 생활 초기의 부부가 경험하는 것들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는 부부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자녀 출산 그리고 가정생활과 일의 양립이라는 도전 과제 등 가정생활을 시작하면서 따라오는 변화를 함께 마주하며, 부부 사랑과 가족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자유와 서로에 대한 책임감 안에서 성숙해 나가며, 그들의 경험을 꾸준히 복음의 빛 안에서 되새기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부부는 가정생활의 다양한 시기들을 헤쳐 나가는 데에 도움을 줄 많은 인간적 영성적 자원을 바로 이 처음 몇 년 동안 일구어 나갑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깊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혼인과 가정생활로 부르신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사랑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가정들이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상호 지원을 경험하며 교회 공동체의 삶 안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공동 책임 의식을 가지도록 증진하는 방법들을 탐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혼인 생활 초기의 부부들을 도울 가장 효과적인 동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가정들이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상호 지원을 경험하며 교회 공동체의 삶 안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공동 책임 의식을 가지도록 증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부가 그들의 관계적-영적 자원, 생명을 낳고 기르는 부모로서의 자원을 인식하고 발전시키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가정들이 서로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다른 이들을 위한 동반과 증언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가정들의 관계망이라는 풍성한 결실을 드러내는 경험으

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4. 삶의 어려움 속에서 동반하고 지원하기 복잡한 상황에 놓인 가정들과 함께 걸어가기

혼인 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관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와 가정은 각별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러한 때야말로 복음이 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상황들입니다. “우리는 취약함을 인식하는 가운데 혼인 성소의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신뢰’(『사랑의 기쁨』, 36항)와 거룩함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열망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들, 특히 현대 사회에 만연한 수많은 형태의 가난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실패와 연약함, 이상과 현실의 괴리, 삶의 복잡한 상황들도 하느님 은총의 활동을 깨닫고 존중과 인내와 희망으로 개개인을 동반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취약하거나 힘겨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 왔습니까? 어떤 형태의 저항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고통, 버림받음, 별거,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으로 경청받고 참여하며 공동 책임을 함께 나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떠한 구체적인 경험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달으며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개인과 가정을 도와주면서,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식별하며 동반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교회의 얼굴을 오늘날 이미 보여 주고 있습니까?

5. 교회 사명의 주체인 그리스도인 가정들

부부 사랑과 가족 사랑을 선교 사명으로 향한 원동력으로 받아들이기

성 바오로 6세 교황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부부들 자신이 다른 부부들의 사도이자 안내자[입니다]”(『인간 생명』[Humanae Vitae], 26항). 그들은 사랑이 정적인 현실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 주는 역동적인 여정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고정되어 있는 삶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부부들은 사랑의 언어를 날마다 끊임없이 새롭게 익혀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부부들은 공동으로 부름받은 사랑의 성소에 고유한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개인과 교회와 사회의 삶에 유익을 더해 주는 ‘항구한 사랑을 위한 훈련’을 복돋우려면, 교회의 선교 사명에 대한 가정들의 기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세계의 삶이 여러 도전을 제기하지만, 가정은 여전히 새로운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첫째 자리입니다(『사랑의 기쁨』, 287항 참조). 가정의 사명은 여러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복음의 일상적 증언에서, 다른 가정들에 대한 동반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에 대한 참여에서, 그리고 사랑과 돌봄과 연대의 체험들을 통한 사회 기여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들과 가정들의 경험을 인간적, 영성적, 교회적, 사회적 성숙의 장으로서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부 관계를 통하여 신앙은 물론 사회생활에서 살아 있는 성장의 체험을 증진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복음화 사명과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에 가정들이 이바지하는 바를 어떻게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까?

바티칸에서
2026년 7월 6일